

문화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연기상 수상 오윤환·박선희 부부

눈빛 교환하며 '완벽 호흡' 무용수의 삶 뛰어넘어 자존감을 지킬수 있어 좋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에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다. 20여년을 짝을 이뤄 함께 춤을 추었고, 그 중에 13년은 '부부'라는 인연까지 더해졌다. '발레스타'가 거의 없던 시절, 광주시립무용단의 주역이었던 두 사람은 '지젤', '돈키호테'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2011년, 아내는 무대에서 내려와 학원을 운영하며 안무가로 활동중이고, 연필이 다 닳아 없어진 남편은 아직도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서는 '현역 발레리노'다.

오윤환(44), 박선희(42) 부부는 2011년 가을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게 됐다. 최근 막을 내린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박씨가 안무를 맡은 로얄발레단의 '티핑포인트 37.5도'가 대통령상 등 4관왕을 수상했고, 오씨는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2009년 오랫동안 품 담았던 무용단을 떠나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후 꼭 아이가 집을 잃어버린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떤 편 한달 월급 대부분을 토슈즈 값으로 쓰면서 열심히 춤을 추었는데 막상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허망한 생각에 많이 힘들었죠. 이번 수상으로 무엇보다 가슴에 없어두었던 돌덩이를 내려놓고 무용수의 삶을 뛰어넘어 무용인, 무용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뜻밖에도 있구요."

학원여중 1학년 때 처음 발레를 시작한 박씨는 조선대 1학년 때부터 광주시립무용단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했고 졸업 후에는 무용단에 입단, 주역을 도맡았다.



'티핑포인트 37.5도' 4관왕 "광주 무용계 발전 위해 배우며 봉사"

무용수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준비없이 무대를 떠난 무용수가 제자리를 잡기는 힘들었다. 학원에 옮긴 후엔 오히려 예술제에서 첫 안무 작품을 올릴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질타도 받았었다. 박씨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준 건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선생님들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무용수'라고 격려했던 남편이었다.

함께 춤출 때는 한번도 싸운 적이 없었지만,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안무와 작품 해석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솔직히 아내가 이번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 줄 잘 알기 때문에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됐어요. 워낙 클래식 발레에만 익숙했던 터라 모던발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구요. 음악을 천 번 넘게 들으면서 고민하다보니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연기상까지 타고 나니 또 다른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현재도 광주시립무용단 주역무용수로 활동중인 오씨는 환절한 외모와 뛰어난 테크닉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본인은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하지만 전신 마취만 4번을 할 정도로 발레리노에게 재산과 같

은 '육체'는 많이 허물어졌고, 무릎의 연골은 다 닳아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춤을 추고 싶어한다.

"20년간 무대 위에 살고 있는 무용수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무대에 설 수 있고, 편하게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무용수로서의 자존감은 지키고 싶어요. 내일 당장 춤을 그만두더라도 말이죠."

현재 전남대 교유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씨는 무용수들의 권익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연기상 등을 수상한 박선희·오윤환 부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리보는 화제의 영화 '첼피아노'

개봉 앞서 특별시사회, 내일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지난 7월 중국 전역 1420개 스크린에 개봉 때 화제를 모았던 '첼피아노(감동 장막·The Piano In A Factory)'가 국내 개봉에 앞서 2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에서 특별시사회를 개최한다.

첼피아노는 광주 ㈜자연영화사(대표 최광석)가 제작하고 에이엔트사운드 오영목 대표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중국 소도시인 첼강도시에서 일어나는 가족이야기를 담고 있다.

첼피아노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10년 토토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동경영화제(경쟁부문 남우주연상), 마이애미국제영화제(작품상), 로테르담영화제, 두바이국제영화제, 우디네국제영화제, 중국화표장(신인감독상, 작품상), 부천판타스틱



제영화제 등 세계 40여 개국에 초청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일본 공연

4일 가와사키현립음악당 공연장

광주가 낳은 소리꾼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대하인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일본 공연이 오는 4일 오후 7시 일본 가와사키현립음악당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는 지난해부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에게 발표 무대를 제공하고 한·일 문화교류를 위해 일본 공연을 진행해 왔다.

진흥회는 이번 일본 공연을 위해 김명남씨 등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3명을 포함, 판소리·무용·가야금 병창 수상자 19명으로 공연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판소리, 부채춤, 가야금

병창, 산조합주, 남도민요, 설장고, 소고 무, 단판창극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요코하마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와 현재 주재 상사원, 교민, 일본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흥회는 이번 무대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중외공인 특설무대에서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공연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할 김중채 이사장은 "이번 일본 공연이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정적 감성으로 풀어낸 풍경들

조강현 개인전, 3~15일 광주 롯데갤러리

산자락과 수평선 등 서정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조강현씨가 오는 3~15일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작업을 유학 전 10년, 프랑스에서의 10년, 귀국 후 10년 등 3개의 색선으로 나눠 선보인다.

배경과 사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한 대신, 뚜렷한 색 대비를 통해 모호한 경계 사이에 긴장감을 줬다. 또 수직과 수평의 화면 분할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를 담아냈다.

파리 8대학 조형학과와 프랑스 리옹 국립 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제15회 지중해 비엔날레, 프랑스 생테티엔시 초대전 등에 참가했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



'땅의 기억'

로 활동했고, 예뵈고, H-Max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1-1807.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